

# ‘39경기 36회 우승’ 정종진 막을자 누구냐

21기 황인혁, 정종진 대항마 떠올라 스포츠동아배 우승 신은섭 기세등등 정하는 체력 장점·성낙송 연대 절실

경륜 슈퍼특선반 선수들의 자존심 대결이 뜨겁다. 올해 지금까지 열린 대상 경륜 우승 트로피도 모두 이들 차지였다. 박매치 결승은 그날 슈퍼특선반 선수들의 개인 컨디션과 얼마만큼의 연대세력을 등에 업고 경기를 펼치느냐에 따라 우승 향방이 달라졌다. 그만큼 기량 차이가 거의 없다. 슈퍼특선반 5인방의 활약상을 중간점검하며 남은 하반기 경륜 판도와 그랑프리 대상을 예측해본다.

### ● ‘절대강자’ 정종진(20기, 32세)

시즌 39경기에 나서 무려 36회나 우승했다. 그중 두 번의 대상 트로피도 들어올렸다. 우승 못한 세 번은 이현구, 성낙송에게 각각 한 번씩 일격을 당한 것과 왕중왕전에서 긴 거리 승부에 나섰다 가 황인혁에게 우승 트로피를 내어준 경우였다. 하지만 리벤지 매치라 할 수 있는 부산시장배 대상경륜에서 황인혁을 물리치고 자존심을 회복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기 정종진 21기 황인혁 21기 성낙송 18기 신은섭 21기 정하늘

### ● ‘상반기 왕중왕’ 황인혁(21기, 31세)

올해 정종진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다. 상반기 왕중왕이란 타이틀과 함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반경주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후착을 정하는 여유까지 보이고 있다. 황인혁을 앞세운 충청권 젊은 신진세력(황준하, 양승원, 조주현 등)이 급부상하고 있어 만약 수도권과의 연합이 깨진다고 해도 언제든지 독자노선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 ● ‘혈혈단신’ 성낙송(21기, 29세)

반바퀴 결정력이 탁월한 성낙송은 혼자서 수도권 강자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혼자 힘이 부치는 모습도 보

인다. 올해 다섯 번의 대상경륜에 출전해 모두 결승까지 올랐으나 한 번도 입상권에 들지 못했다. 유독 큰 경주에 약하다는 징크스도 있고 연대세력이 없어 단순한 작전을 펼치다 다른 선수들에게 당하고 있다. 계속된 작전 실패로 자신감마저 잃는다면 슬럼프로 이어질 수 있어 경사권 동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 ● ‘위풍당당’ 신은섭(18기, 32세)

양대 산맥인 정종진과 황인혁이 빠졌던 하반기 첫 박매치 스포츠동아배 대상경륜에서 우승했다. 정종진과 함께 편성된 경주에서는 대부분 후미 마크에 만족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택했는데, 현

재 기세라면 이제는 과감한 작전을 구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 ● ‘신홍강호’ 정하늘(21기, 29세)

올해 들어 유독 대상 우승과 인연이 없다. 대상 결승에서 3차 2번, 2차 1번을 기록한 것이 전부다. 3연패에 도전했던 왕중왕전에서는 7차에 머물렀다. 하반기 첫 시합에서 낙차를 당하며 아찔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빨리 극복한 정신력은 높이 살 만하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스포츠선반 중 나이가 가장 적어 체력적인 우위를 활용하면 하반기 대상 경륜에서 만년 2인자란 이름표를 떼어낼 것으로 평가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13기 김상근 ‘용감한 경륜선수패’ 수상

현직 경륜 선수인 김상근(39세, 13기, A3)이 경남 김해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나던 범인을 붙잡았다. 김상근은 7월 28일 오후 10시쯤 집으로 가던 중 여성의 비명소리와 함께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 옷을 입은 채 달아나는 남성을 발견했다. 김상근은 곧바로 달려가 남자를 제압했고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재빠른 대처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선행 소식을 전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8월 29일 김상근에게 ‘용감한 경륜선수패’를 수여했다.

## 고전하는 50대 경정 노장들…자기관리만이 살 길

### 기술은 문제 없지만 체력 감소 절감

경정 선수의 나이 스펙트럼은 비교적 넓다. 막내기수인 15기에는 학교를 갓 졸업하고 곧바로 선수생활을 시작한 경우도 있다. 반면 1, 2기 선수들은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다가 경정 선수를 선택해 전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편이다.

현재 경정에서 50세 이상의 노장 선수는 박석문(56세, 2기, A1), 정인교(53세, 1기, B2), 조현규(51세, 1기, B1), 최재원(51세, 2기, B1), 권명호(50세, 1기, A2), 윤희근

(50세, 1기, B1), 김명진(50세, 1기, B1) 등이 있다. 젊은 선수들에 비해 체력적 부담은 있지만 원년부터 뛰 베테랑들이다. 최고령 박석문은 아직도 A1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권명호도 A2급으로 나쁘지 않다.

하지만 최근 노장들의 활약이 썩 좋지 않아 분위기 반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만행인 박석문은 전반기(12승)와 달리 하반기 들어 단 한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다. 최재원도 시즌 초반(8회차)에 있었던 플라잉의 여파 때문인지 아직도 스타트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정인교는 전반기 성



1기 권명호 2기 박석문

적 하위 5%에 속하며 주선보류까지 받는 최악의 모습이다.

하반기에 반전을 꾀하기에 상황은 녹록치 않다. 경정은 모터의 성능이나 조종술, 정비 능력 등이 중요한 입상 요인이지만 체력적인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힘이 달리면 선회 스피드도 떨어진다. 역전의 명

수였던 권명호는 최근 착순을 지켜내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합 상황에서도 약점을 드러냈다. 시즌 내내 꾸준한 성적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체력적 부담이 큰 무더운 여름이 지났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지난주 정인교가 2연속 준우승을 차지했고, 조현규도 4월 이후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노장 선수들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보강하기 보다 웨이트 등을 통해 체력과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용운 기자

### 제2회 경륜경정 건전화 포스터 공모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0월 20일까지 ‘제2회 경륜경정 건전화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건전하게 즐기는 관람 스포츠로서의 경륜·경정, 구매 상한액 준수, 구매자 책임 이용을 강조하는 과목임 예방이다. 출품작은 사진, 드로잉, 일러스트, 캘리그래피 등으로 세로형 포스터 파일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이메일(Kcyclrace@naver.com)만 가능하다. 1인당 3점 이내로 출품하면 된다. 당선작품의 저작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귀속된다. 금상 1명(300만 원), 은상 1명(200만 원), 동상 2명(100만 원), 장려상 5명(50만 원)이 선정된다. 정용운 기자



## 야구팬 47% “갈 길 바쁜 KT, LG전 승리”

야구도토 스페셜 97회차 중간집계 3위 키움, 2위 두산전 승 48% 예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는 4일 열리는 2019시즌 한국프로야구(KBO)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도토 스페셜 97회차 투표를 중간 집계한 결과, 참가자의 47.13%가 KT-LG(3경기)전에서 홈팀 KT의 근소한 우세를 전망했다.

원정 팀 LG의 승리 예상은 36.34%로 나타났다. 양 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은 16.53%를 기록했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KT(4~5점)-LG(2~3점)이 7.13%로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KT(2~3점)-LG(4~5점)과 KT(4~5점)-LG(4~5점)이 각각 6.16%와 5.83%로 그 뒤를 이었다.

KT가 안방으로 LG를 불러들인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LG가 한 수 위다. 현재 LG는 6위 KT(62승2무63패)보다 높은 4위(67승1무56패)에 위치하고 있고, 양 팀의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도 10승3패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를 마주하는 KT의 자세가 남다르다. 가을야구 입성이 확실시되는 LG와 달리 KT는 NC와 치열한 5위 싸

움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양 팀이 한 게임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NC는 리그 선두 SK와의 어려운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KT가 이번 맞대결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다분하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LG에게 손쉬운 승리를 거두긴 어렵겠지만, 가을야구 진출이라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에서 KT가 안방의 이점을 효과적으로 살린다면, LG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다.

두산-키움(1경기)전에서는 키움의 승리 예상이 48.13%를 차지했고, 두산의 승리 예상은 35.64%를 기록했다. 양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은 16.23%로 가장 낮았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두산(2~3점)-키움(4~5점)이 8.64%로 최다를 기록했다.

마지막 SK-NC(2경기)전에서는 NC 승리 예상(55.40%), SK 승리 예상(28.16%) 양 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16.44%) 순이었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SK(2~3점)-NC(4~5점)이 8.2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야구도토 스페셜 97회차 게임은 경기 시작 10분 전인 4일 오후 6시 20분 발매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 최종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 베트맨, 9월 건전화 이벤트…‘해덕’ 쏜다

### 건전화 프로그램 사용 시 자동 응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의 공식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이 9월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인 ‘풍성한 가을, 건전한 토토생활과 함께 즐겁고 건강하게’를 실시한다.

건강한 베팅문화에 앞장서고자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베트맨이 운영하고 있는 건전화 프로그램인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그리고 ‘건전구매 캠페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셀프 진단평가’란 회원 스스로 자신의 게임성향을 진단해 자신의 게임 몰입도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셀프 구매계획’은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이 스스로 한 주 동안 구매금액 한도와 횟수를 미리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밖에 ‘건전구매 캠페인’은 올바른 스포츠도토 구매에 대해 알아보고, 건전 구매 가이드라인 지키기를 통해 건전한 토토 구매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

앞서 언급된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에 참여할 경우 이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락앤슬립 스탠드 해덕(1명)과 카즈미 릴렉스 체어(10명), 써



모스 텀블러(10명)를 증정한다. 또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1인 1회에 한해 베트맨 사이트 내의 다양한 경품 응모가 가능한 벅볼 500개를 지급한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30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0월 2일 공지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베트맨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일 SK-두산전 족집게는?

### 케이토도 O·X 이벤트 진행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5일 열리는 국내프로야구(KBO) 경기를 대상으로 승부를 맞히는 ‘토도 O·X’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경기는 5일 오후 6시 30분 벌어질 2019 KBO리그 SK와 두산의 맞대결이다.

이벤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포츠도토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어진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정답을 O 또는 X로 예측하여 댓글을 남기면 된다.

첫 번째 상황은 ‘홈팀 SK가 승리한다’이며 두 번째는 ‘양 팀 득점의 합이 최종 10점 이상이다’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SK 최정 또는 로맥이 홈런을 기록 한다’가 주어졌다. 이상 3가지 항목에 대한 정답을 모두 맞춘 스포츠팬 중 5명에게는 도넛을 구매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오는 5일 오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10일 에 발표된다. 이밖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도토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